

# 이 유

## 1.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0년부터 ○○동 3○○-6 번지에서 빨래방을 운영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빨래방 맞은편에 2020.1월1일 정도 부터 지하3층~지상14층 공사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여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 이에 여러번 구청민원과 현장소장 ○○○씨에게 하소연을 하였지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 빨래방은 기계를 사용하여 세탁을 하는 업종으로 손님들은 가까운 거리의 빨래방을 이용하는 특성의 업종입니다.
- 음식점이나 기타 업종처럼 음식 맛이나 기술로 손님을 유치하는 업종이 아닌 것입니다.
- 신청인을 가운데로 하여 바로 옆 건물과 근접건물 두 곳에 빨래방이 영업을 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 속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저가정책으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헌데 바로 앞 건물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먼지와 소음, 진동 주차 등의 불편상황이 벌어지자 손님들은 바로 옆 빨래방으로 이탈하였고, 단골로 겨우 버티던 상황에서 이제는 월세도 못 낼 상황입니다.
- 영업 손실과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잠깐의 공사도 아닌 2년 넘는 공사기간이면 한번 이탈한 손님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 철거시 굉음과 진동 등은 저도 무서워서 잠깐도 있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1시간이 넘는 세탁시간 동안 있어야하는 손님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 저희 빨래방은 세탁 3,000원 건조 4,000원으로 평균1인 사용요금은

7,000원에 달합니다. 하루 4명의 손님만 이 공사로 줄었다면 하루 평균 84,000원, 한달 1,008,000원 연12,096,000원 2년 공사 기간 24,192,000원의 피해액이 발생합니다.

- 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월 300천원 하면 2년 동안 7,200천원 발생합니다.
- 또한 빨래방은 운영 시 인건비와 소모품이 거의 없어서 기본 운영비 (임대료,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를 충당하고 나면 수익금액의 90%~80%의 수익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감소한 매출의 90%는 순수익액의 감소인 것입니다.
- 저희 매장은 현금을 사용하는 매장으로 정확한 수익감소 증빙은 가스비로 증빙하고자 합니다.
- 수도세도 있으나 수도세는 건물 공동으로 사용하여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가스비는 저희 매장만 별도로 나오는 것이고, 건조기를 가스로 가동하고 있으니 손님이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나오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 2019년 1월, 2월, 3월 대비 2020년 1월, 2월, 3월 30%의 매출 감소가 확인합니다.
- 추가로 키오스크의 금액과 제가 관여되어 있는 ○○동 4○○-○ ○○ ○○○○의 매출을 비교하여 다른 빨래방은 겨울과 봄 사이 매출이 증가하는데 비해 오히려 저희 빨래방의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 2020.1.7.일 저희 빨래방에서 본 철거상황 및 문자로 전화로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한 내용입니다.
- 바로 옆에서 대량의 먼지로 손님이 오히려 저에게 무서워서 못있겠다고 키오스크 적립만 없으면 본인도 오지 않을거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작은 낙석이 저희 가게 앞에 떨어진 모습의 사진입니다.
- ○○구청 담당자도 소음이 90dB이 넘게 측정되어 피신청인이 행정조치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적합한 절차시 제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이 상황이 절박하고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 부디 빠르게 진행하여 신청인의 영업피해 및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나. 피신청인 주장

- 2020년 1월중에는 철거공사중으로 구청에서도 소음 및 진동이 영업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민원으로는 보기 어려워 철거시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신청인의 영업손실은 당현장의 공사로 인한 손해보다도 주변에 빨래방이 6개소, 세탁소가 10개소로 빨래방과 세탁소가 많아 과다 경쟁으로 인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민원인의 주차등의 불편사항은 당초에 주차장이 없고 이면도로 주차가 불법이고 현재도 차량 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라 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철거완료 후 현재 주·야간 빨래방 영업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营业을 하고 있습니다.

## 3. 사실조사 결과

###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이며 신청인 영업장 반경 400m 이내 빨래방 등 동종 업종이 6곳 이상 영업중이며, ○○로가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많아 정온한 환경은 아니다.

### 나. 신청인 건물 및 영업 현황

- 위 치: ○○구 ○○길 1○-○○

- 지 역: 일반상업지역
-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 용 도: 근린생활시설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 사용승인: 1987. 1. 22.
- 영업현황

업종	상호	대표자	매장면적	개업일	비고
빨래방	○○빨래방	○○○	26㎡	20○○. ○. ○.	월88만원, 보증금1000만원

## 다. 피신청인 공사 현황

- 공사명: ○○구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 위 치: ○○구 ○○동 303-4
- 규 모: 지하3층, 지상 14층(연면적: 7,547㎡)
- 용 도: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2019. 11. 30. ~ 2022. 2. 3.
- 시 공 사: (주)○○○○건설

##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 점검 현황

-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 점검 결과
  - 시공사를 상대로 인근 주민의 소음 등의 피해민원이 관할구청(환경과)에 33회 제기되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가. 피해요인 인자

- 본 사건의 환경분쟁 피해요인 인자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공사장소음·진동

- 철거공사 발생하는 비산먼지
- 공사장진동의 경우 투입된 건설기계(압쇄기, 굴삭기, 천공기 등)의 발생 진동레벨이 수인한도[70dB(V)]에 하회하여 주된 환경분쟁 피해요인이 될 수 없다.
- 철거공사 발생되었을 비산먼지는 피신청인의 현장관리(방진막 설치 및 살수 운영 등)시와 도심지내 공사상황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 대한 영향 정도는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본 사건의 환경분쟁 피해요인 주요인자로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공사장소음으로 설정하였다.

## 나. 소음 피해 평가

- 시공사에서 제출되어진 자료와 현장조사(전문가 조사결과 포함)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내용, 의견서 등에 기초하고, 미확인 자료는 공사규모 및 유형의 유사성이 있는 통상의 공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소음 피해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 일반적인 공사상황을 가정한 후 건설기계의 발생소음도를 적용하여 ‘합성 소음도 이론’, ‘점음원 거리감쇠 이론’을 통하여 예측소음도 산정하였다.
- 가설방음판넬 설치(재질:RPP, H:4.0~6.0m)에 따른 소음감쇠효과중 투과손실치는 피신청인 공사장이 주변 고층 건물로 둘러 쌓여 반사음에 대한 영향과 안전율 등을 감안하여 5dB(500Hz) 적용하였다.
- 이격거리 조건은 일별 투입된 장비를 모두 가동시켰다는 조건하에서 공사장 중심에서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시한 ‘장비투입내역’상의 공사일별(2019. 12. 06 ~ 2020. 09. 19) 예측 및 저감 후 소음도는 <표 3>과 같으며, 저감 후 소음도 기준으로 57~78dB(A)로서 일부 수인한도(70dB(A))를 초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나. 영업손실 피해 평가

- 신청인이 세탁기와 건조기 등에서 수거한 동전 등을 집계한 자료를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제출한 수지 분석 기록 중 제비용은 실제지출액으로 신뢰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매출감소액을 산정하였다.
- 영업피해율: 20%
  - 본 사업장은 무인사업장으로 빨래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는 24시간 계속 발생하지 않고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초과소음도가 10[dB(A)] 미만인 점, 야간에도 빨래방은 운영되는 점, 주변 동종 업종이 증가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피해율을 20%로 산정하였다.

## 4. 판단

- 피신청인의 장비투입내역에 근거하여 건설장비와 투입대수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영업장에서의 공사장소음 예측결과, 상업지역 수인한도 70dB(A)를 최대 8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영업장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 신청인이 영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점, 영업장 관리를 위한 방문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관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은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 과정 중 소음으로 인한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5. 배상수준 검토

###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주)○○○○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손실 피해를 받은 신청인 ○○○에게 배상한다.

## **다. 배상금액 검토**

- 건물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배상액 364,000원, 재정 수수료 1,09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365,090 원이다.

## **6. 결론**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서류, 현지조사결과, 전문가 의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